

#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출범

- 민간 차원 예방주사 100% 접종 활동 본격 돌입
- 공동본부장에 최상백 · 이길재 · 이우재 · 박순용 · 이병석씨 선출

- 홍보부 -



▲축산관련 23개 기관·단체·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최상백 회장(오른쪽 서있는 사람)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전담할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가 공식 발족되었다.

본회 최상백 회장과 이길재 한국양돈연구회장(국회의원), 박창정 농림부 차관보,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박순용 축협중앙회장, 이병석 한국사료협회장, 서정범 한국동

물약품협회장, 김영석 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장, 진길부 경기동남부양돈방역협의회장, 윤희진 전국GGP협의회장,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사장, 윤봉중 축산신문사장, 전정희 농수축산신문사장 등 23개 양돈관련 기관, 단체, 업체 대표들은 4월15일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창

〈표〉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기본 계획

단 계	기 간	목 표	사 업 내 용
1단계	1999. 4. 1~1999. 5. 31	조직정비 및 실태조사	조직정비, 실태조사, 교육, 홍보
2단계	1999. 6. 1~2000. 8. 31	100% 예방접종, 유지	감시활동 강화, 교육·홍보
3단계	2000. 9. 1~2001. 3. 31	청정화 확인	청정화 확인, 예방접종 중단

립총회를 개최하고, 동 본부를 공식 발족시켰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상백 본회 회장이 낭독한 창립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한편, 동 본부를 사단법인으로 하고 돼지콜레라를 박멸하는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는 내용의 정관(안)을 통과시켰다. 동 정관(안)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동본부장에 최상백 대한양돈협회장과 이길재 한국양돈연구회장, 이우재 대한수의사회장, 박순용 축협중앙회장, 이병석 한국사료협회장을 선출하고, 상임본부장에 최상백 회장을 선출했다. 참여단체장 23명과 공동본부장, 집행위원장을 이사로 선출했다.

참석자들은 집행위원장에 황민영 농민신문사장을 선출하는 한편, 집행위원회 위원에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배상호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 윤충근 축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과장, 김영석 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회장, 이복영 한국사료협회 상무, 안수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장, 진길부 경기동남부양돈방역협의회 회장, 이주호 농림부 축산위생과장, 박봉균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윤희진 전국GGP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선출했다.

참석자들은 금년 5월30일까지 조직정비 및 실태조사 실시(1단계), 금년 6월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00% 예방접종 실시 및 유지(2단계), 내년 9월1일부터 2001년 3월31일까지 예방접종 중단 및 청정화 확인(3단계)을 하는 사업계획(안)과 54억원의 99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비대본부가 돼지콜레라를 박멸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참여단체의 회비와 협찬금, 정부 지원금, 사료회사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사료회사들의 기부금은 양돈사료 판매대금의 0.5%를 기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사료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인정 문제가 사전에 해결돼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료협회는 4월27일 이사회의를 열고 기부금 모금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동 대책본부는 돼지콜레라 백신 100% 접종을 목표로 각종 활동을 벌여나가게 되며, 특히 민간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돈**